

January 25, 2017

Africa

부르키나파소; GM면화 도입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보고

오클라호마주립대(Oklahoma State University)와 L'Institut de l'Environnement et de Recherches Agricoles (INERA)의 연구원들이 6년간 실시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에서 GM 면화는 살충제 사용량을 2/3로 줄였으며, 기존 품종에 비해 수확량의 증가와 노동력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또한 농장의 규모가 GM면화의 도입을 저해요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모든 농장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GM 면화 재배로 인해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또한 노동력이 기존 재래 면화 품종보다 GM 면화 농장에서 더 가치가 높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mericas

새로운 유전자변형기술, 생물학적 시스템 설계 및 연구를 도울 수 있어

세인트루이스(St. Louis)에 위치한 워싱턴 약학대학(Washington University of Medicine) 연구팀은 특정 유전자가 생산하는 단백질 양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의 생물학자들이 세포를 의약품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제한된 물로 작물이 자라게 하거나, 건강에 미치는 유전자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워싱턴 약학대학의 조교수 Sergej Djuranovic박사는 이 새로운 기술은 "유전자발현을 변형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도구"라고 하였으며 연구자들이 특정 유전자에서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술은 DNA에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주요 단계인 mRNA 번역의 이점을 이용했다. 연구팀은 박테리아, 원생동물, 효모, 식물, 초파리, 쥐 그리고 인간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RNA 번역과정은 모든 생명체에서 발생하는 진화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체에 이 연구의 적용이 가능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USTL website

Asia and the Pacific

호주 유전자기술규제국 (OGTR), GM 면화 포장시험 승인

호주 유전자기술규제국(OGTR)은 몬산토의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GM 면화의 제한 포장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포장시험은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 호주 북쪽지역, 빅토리아, 호주 서쪽 지역의 면화 재배지에서 2017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실시된다. 계획안에는 2017년에는 50헥타르, 2018년에는 100헥타르, 2019년과 2020년에는 250헥타르의 50여 곳의 재배지역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각 재배지의 최대 경작면적은 2017년에는 2헥타르, 2018년에는 10헥타르, 2019년과 2020년에는 50헥타르로 계획되었다. 이 포장 시험 GM 면화는 인간의 식용이나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최종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계획(RARMP)에선 이번 제한되고 통제된 포장 시험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한 위해 처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최종 RARMP과 요약문 및 이번 결정에 대한 질의응답 및 허가증 사본은 OGT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R 147 page](#)

Announcements

제 17회 유럽 생명공학 학회

주제: 제 17회 유럽 생명공학 학회

장소: 독일, 베를린

일시: 2017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